

광주시·전남도교육감, 시·도 통합 '회의적'

장휘국 시교육감 "교육은 통합 시너지효과 낼 수 없어"
장석웅 도교육감 "지역사회 활력 잃고 고사 위기 우려"



장휘국 교육감 장석웅 교육감

광주와 전남을 달구고 있는 이용섭 광주시장 발(發) 시·도 통합 논의에 대해 지역 교육 수장들의 공식 입장이 나와 주목된다. 이 시장이 시·도 통합 논의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교육 여건의 한계 등을 들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장석웅 전남도교육감도 '우려'를 표명했다.

통합하면 전남 학생들이 광주로 대거 몰려 전남 교육이 황폐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현재 광주 교육 시설로는 전남 학생들을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교육행정 관점에서만 보면 시·도 통합이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고 밝혔다.

초등학교는 큰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중·고등학교는 광주로 전학 가는 일이 많아질 것이다"고 걱정했다.

이처럼 시 교육감·도 교육감이 시장의 통합 방향·내용과 궤를 다소 달리하면서 향후 통합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가 됐다.

홀로사는 어르신 9800세대 ICT 활용 응급안전서비스 전남도, 연말까지 확대



이재민용 긴급구호세트 제작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직원들이 17일 광주 북구 매곡동 구호창고에서 코로나19 및 이재민용 긴급구호세트를 제작하고 있다. 총 600여개가 제작되는 구호세트에는 담요, 운동복, 속옷, 칫솔, 치약 등 생필품이 들어 있다.

전남도가 65세 이상 홀로사는 어르신 등 9800세대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확대 보급한다.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전남도가 미래첨단과학기술을 접목시켜 노인들이 편의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이 휴관 조치됨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동이 축소되면서 취약 어르신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은 홀로사는 어르신 가정에 출입·음침·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해 어르신 일상생활을 관리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기존에 설치된 장비 1만3518대 중 노후화된 장비 8180대를 교체하고 신규 대상자를 위한 9874대를 추가 보급해 연말까지 홀로사는 어르신 등 2만3000세대를 대상으로 돌봄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전남도는 4만8000여명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맞춤형돌봄서비스를 통해 안부확인 및 일상생활 지원, 연계 서비스 등을 제공했다. 특히 홀로사는 노인 등에게 ICT(응급안전안심서비스, 1만3000세대) 및 IoT(독거노인 건강안전알림서비스, 1700세대) 기기를 활용해 어르신들의 거동, 응급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코로나19·폭우에...광주소방, 올 여름 눈코 뜰새 없었다

구조 건수 4318건...8.4% 증가 배달 늘면서 오토바이 사고 급증

올해 광주 화재, 구조, 구급 출동 현황에 코로나19, 폭우, 태풍 등 역대급 재난·재해에 시달린 지역 생활상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지난해 18건이었던 수난 구조는 379건으로 크게 늘었다. 8월 7일부터 3일간 내린 집중 호우, 8~9월 잇따라 발생한 태풍의 영향에 따른 시설물 침수 사고가 다수였다.

화재는 하루 평균 2.3건, 총 647건이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18명으로 지난해보다 4명, 재산피해는 25억8000여만원으로 12억6000만원 줄었다.

18일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구조 건수는 4천31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982건)보다 8.4% 늘었다. 하루 평균 15.8건, 7.7명을 구조

했다. 화재는 하루 평균 2.3건, 총 647건이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18명으로 지난해보다 4명, 재산피해는 25억8000여만원으로 12억6000만원 줄었다.

구급 출동은 코로나19 관련 이송 증가에도 하루 평균 177.4건, 총 4만8603건으로 지난해(5만656건)보다 4%정도 감소했다. 119는 확진자 493명, 고열과 기침 등 코로나19 증세를 보인 의심 환자 1315명 등 492명을 병원이나 임시 격리시설에 이송했다.

5·18 시리즈전 'ECCE HOMO展' 첫번째 전시

5·18기록관, 전일빌딩245서
오늘부터 연말까지 열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5·18민주화운동 시리즈전으로 마련한 'ECCE HOMO展'이 사람을 보라'의 첫 번째 전시를 19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일빌딩 245 9층 5·18기념공간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에케 호모(ECCEHOMO)는 신약성서에서 로마 총독 빌라도가 가시관을 쓴 예수를 가리키며 한 말로, 예수의 고난적인 삶을 상징하고 있는 문장이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시리즈전을 통해 매 분기 5·18민주화운동 당시 고난을 겪은 인물을 발굴해 소개한다는 계획이다.

첫 번째 전시 'ECCE HOMO展①'이 사람을 보라'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남경찰의 타임라인과 관련 사진, 경찰 정계 관련 문서 및 신문기사, 40년이 지난

뒤 정계 취소 관련 문서 및 사진자료로 구성된 아카이브 기획 전시다.

정용화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은 "진상규명이 진행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은 여전히 1980년 5월 속에 잠겨있는 인물이 많다"면서 "전일빌딩245 5·18기념공간 기획전시를 통해 5월 속 인물을 발굴해 그 사람의 삶을 재조명해 5·18민주화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일빌딩 3층 전시실 '5·18과 언론', 9층과 10층 전시실 '5·18기념공간'에선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며, 1월1일과 설날 당일,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하루 5차례(오전 11시, 오후 1시, 오후 2시30분, 오후 4시, 오후 5시30분) 정기해설도 진행한다. 예약 및 관람 문의전화는 5·18민주화운동기록관과 전일빌딩245로 하면 된다.

김종집 의장은 "광주시의회는 존재이유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면서 "광주공동체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집행부의 잘못을 단호하게 지적하고 시정을 이휘날 수 있도록 시민 모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종집 의장은 "광주시의회는 존재이유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면서 "광주공동체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집행부의 잘못을 단호하게 지적하고 시정을 이휘날 수 있도록 시민 모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광주시의회, 시정 위법·부당 사항 시민제보 받는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반영

광주시의회(의장 김종집)는 다음달 3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되는 2020년도 광주시·광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제보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제보는 오는 30일까지 가능하며,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와 예산낭비 사례, 시책 개선이 필요한 사항, 기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을 제보하면 된다.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하거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다만, 사생활 침해나 재판·수사 중인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 사항, 익명제보 등 부적절한 사항은 제외된다.

제보는 광주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시민소통 코너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로 처리된다.

김종집 의장은 "광주시의회는 존재이유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면서 "광주공동체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집행부의 잘못을 단호하게 지적하고 시정을 이휘날 수 있도록 시민 모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기후 위기 대응' 내년 실천 의제 선정

광주 시민 총회

생활 속 민주주의 실천 모델인 '광주 시민총회'가 기후 위기 대응을 내년 실천 의제로 선정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2020 광주 시민총회'에서 내년 실천하고 싶은 의제를 토론·투표한 결과 '기후 위기 대응 정책 지금 바로 이행해야 합니다'가 선정됐다.

광주시는 6월부터 온라인 소통 플랫폼 '바로 소통 광주'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접수한 71개 제안 가운데 10대 예비 의제, 3대 후보 의제를 차례로 압축했다. 후보는 기후 위기 대응을 포함해 마을

문화 공간 치유의 숲,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 만들기(식품안전 보호구역 확대) 등이었다.

최종 의제 선정을 위한 현장 토론에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50명 미만이 참석했으며 온라인 소통도 병행했다.

최영태 시 시민권익위원장은 "시민이 제안하면 행정이 집행하는 기존 총회 방식에서 더 나아가 시민이 제안, 결정, 실천까지 하도록 하는 변화가 있었다"며 "앞으로 의제 실천에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 한국언론진흥재단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정성! 기후후원금이 만드는
정성! 숙한 정치문화

여러분의 정성이 담긴 정치후원금은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 [정치후원금센터 이용 장점]
- 후원회 계좌 확인 및 인적사항 전달 용이
- 후원내역 조회 및 영수증 간편 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 [정치후원금 연말정산 세액 공제]
-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까지 세액공제 (3천만원 초과금액은 25%까지)
-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으로 문의(국번없이 126)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깨끗한 정치를 만드는 격려이자 사랑입니다

정치후원금센터 www.give.go.kr